

중고등부 겨울 행사 '나의 실패 관대한 용서를 하는가?'



계에서 그들만의 실패와 고민에 대한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휴식과 간식을 나누는 뒤 자정을 넘긴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용서, 나는 관대하다』 주제로 전향에서 토의한 내용을 연결하여 '용서하므로 우리는 어떻게 관대하였는가?' 청소년분과장이 현직 중고등부 교사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갔다. 결론은 실패와 용서에 관련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을 관람하면서 주제를 중고등부 학생들의 각자에게 결론을 내리게 한 후 24일 오전 8시에 중고등부 겨울 행사가 끝났다.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청소년분과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26명은 2019년 2월 23, 24일 철야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과 데이케어센터 2층을 이동하면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겨울 행사 진행 계획 순서에 의하여 철야 개최되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겨울 행사는 23일 오후 중고등부 미사 참여로 시작하여 다 함께 저녁 식사와 신나는 게임으로 스피드 퀴즈, 온몸으로 대답하기 이어 행사 순서로 『나의 실패를 맞춰봐 & 인생 곡선』 청소년 세



신앙 지식, 가톨릭의 언론매체 평화방송 평화신문 우리 정성으로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2월 23, 24일 전 미사를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홍보를 위해 본당 출신 첫 사제이신 평화방송 평화신문 홍보사무국장 이도행(토마스) 신부님께서 사제서품을 받으신 이후 근 20년 만에 본당(친정) 미사를 처음 집전하였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홍보주간 이 신부님께서서는 미사 강론에서 '제가 근 20년간 친정 성당 제대 앞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허리 굽혀 인사를 드립니다. 대교구 인사명령과 동시에 시흥4동 성당 홍보 미사 통보에 어리둥절함과 친정이라 오묘한 감정도 받았습니다. 지난밤 사제관에서 청년 시절 반듯한 교육관도 없이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의 모습과 변화된 환경도 보았습니다. 사제가 된 동료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가져 그 자녀들이 사제 옆에서 복사를 서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운명이라기보다 다들 하느님의 은총이겠지요. 제가 직책이 홍보사무국장으로서 평화방송과 가톨릭 평화신문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방송 화면에 이 프로그램은 소중한 신자의 후원금으로 제작한다는 자막이 나옵니다. 친정에 왔으니 인사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